

2편 - 제목: 11기 후배들과 이어진 사랑

내가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 교련 과목이 생겨서 모교에 교련 교사로 2년 반 동안 근무 하게 되었다. 양호실을 맡고 R.C.Y 지도교사를 했는데 정영수가 단장이었다. 영수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전국에서 고등학생 2명을 선발 하는데 뽑혀서 터키에 가게 되었다. 영수는 한복도 준비하여 아리랑을 연습하고 내가 아끼는 기타도 빌려서 가지고 갔다. 홍창기 교장 선생님과 귀국하는 날 김포 공항에 마중을 갔었다. 지금도 예문이가 운영하는 소나무 갤러리는 11기 후배들과 모여서 “차차” 춤도 추고 기쁜 만남의 장소다.

여름방학 때 G.S. 지도교사였던 장영애 선생님이 강습이 있어서 못 가지게 되어 내가 대신 따라갔다. 경기도 용인 포곡 초등학교로 갔는데 2박3일 간 가는 날부터 계속 비가 왔다. 교실 바닥에서 야영 생활을 했는데 간식 만들기 대회를 할 때 건빵을 기름에 튀겨서 물엿을 바르고 땅콩가루를 묻혀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그때 친해진 제자들이 향란, 옥겸, 광희, 호영이와 지금까지 소식을 주고 받으며 기쁘게 지냈다.

11기 후배들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정확한 시작은 언제부터 인지 기억 할 수 없는데 5월달 영흥동 솔밭에서 스승님들을 모시고 생선회로 식사를 대접했다. 내가 존경하는 최광만 선생님들도 오시고 정희수 교감 선생님도 오셨다.

그 후로 을왕리에 가서 꽃게찜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다. 최근에는 송도에서 주로 만났는데 곽노정 선생님, 변영호 선생님, 강하구 선생님, 이진홍 선생님, 원용건 선생님, 임순구 선생님, 허희숙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나 9명이 꼭 참석하고 졸업생은 30명 정도, 지난 번에는 50명 정도 모여서 아기자기한 재롱 잔치도 하며 행복

한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주더니 얼마전 부터는 “뭐니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 라고 하면서 10만원을 신권으로 챙겨 주었다. 작년에는 30만원을 넣어 주어 너무 민망하고 부담스러웠다. “왜 그렇게 많이 넣었냐”고 했더니 “일년에 한번 인데 무슨 큰 일이냐?” 라고 했다. 같이 나이 먹고 늙어 가는 처지인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사랑을 받다니...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다. 후배들과 즐거운 만남을 하고 돌아오면 그들 하나 하나의 표정과 행동들이 떠올라서 한동안은 마음속에 웃음이 퍼지고 행복한 느낌이 계속된다. 아마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한 제자이자 후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올려본다.